

다큐멘터리 사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의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of documentary photography  
 - Focusing on Vivian Maier's self portraits photography -

이 봉 우\*, 양 종 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교수)

Lee, Bung Woo, Yang, Jong Hoon

Sangmyung Univ. The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the Digital Image  
 (\*Doctor course, \*\*Professor)

## 1. 작품 이미지



## 2. 작품 설명<sup>1)</sup>

거리의 사진가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 1926~2009)는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사진을 주로 찍었다. 대상은 주로 거리에서 만나는 행인, 부랑자, 어린이들이었다. 특히,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바로 셀프 포트레이트(Self portraits)다. 당시로서는 드문 방식이었는데 오늘날 유행하는 셀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사진은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 포트레이트다. 수많은 셀프 포트레이트 중에 그녀의 독특한 포토 커뮤니케이션(Photo communication), 즉 사진을 통한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왼쪽 사진은 자신의 그림자를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단순한 그림자 사진이 아니다. 멀리 여자 2명과 아이 2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녀는 멀리서도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는 두 쌍의 엄마와 아이들로 추정되는 이들을 배경으로 삼아 자신의 그림자를 찍었을까? 이 사진 속에 비비안 마이어만의 소통방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배경으로 보이는 이들과 교감 없이도 그녀는 은밀히 그들의 행복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은밀한 의도가 담긴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오른쪽 사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찍은 것이다.

1) 존 말루프(John Maloof) 감독주연의 영화 'Finding Vivian Maier'(2013)에서 많은 영감을 얻음.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치마폭에 담긴 사진에는 엄마와 딸로 추정되는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두 모녀의 다리조차 공교롭게 그녀의 다리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녀가 사진을 아주 공들여 의도적으로 찍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화하는 사진 속 두 모녀가 그녀가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비비안 마이어는 이미 두 모녀를 자신의 치마폭에 들여다 놓고 그녀들의 대화에 이미 끼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그 느낌이 강렬해진다.

### 3. 작품 평론

위 두 작품은 그녀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은밀히 자신을 투영하고자 한 소통방식, 포토 커뮤니케이션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현실에서는 소통할 수 없는 영역과 인물과도 소통 가능하게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카메라를 통해서 누군가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대화에도 끼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톨이를 자처한 그녀로서 더 매력적인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그녀의 카메라 촬영기술과 은밀한 의도만 있으면 됐으니까.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은둔형 삶을 살았다. 하지만 다른 직업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유모(Nanny)로 생계를 해결하며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다.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sup>2)</sup> 그녀는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기보다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한 수단으로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빈 것으로 보인다. 셀프 포트레이트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세상과 소통하는 위치에 갖다 놓았고, 아무도 몰래 그들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다.

비밀스런 거리의 사진가 비비안 마이어는 오직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의 삶과 공동체를 이른 외톨이형 자유인이었다.

2) 비비안 마이어가 사망하기 2년 전인 2007년부터 작가이자 거리 사진가인 존 말루프(John Maloof)에 의해 사진이 비로소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